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공개

‘비밀의 언덕’ 등 9편 선정... 여성 감독 작품 7편으로 강세 이어져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중 하나인 ‘한국경쟁’의 본선 진출작이 발표됐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23회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9편이 선정됐다.

한국경쟁은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경쟁 섹션이다. 올해 한국경쟁에는 지난해(108편)보다 소폭 상승한 12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먼저 이지는 감독의 ‘비밀의 언덕’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짓갈 장사를 하는 부모님이 부끄러워 부모에 관한 거짓말을 글로 풀어내면서 글짓기에 수반해야 하는 진실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또 김진화 감독의 ‘윤시내가 사라졌다’는 윤시내 모상을 업으로 한 가수 엄마와 몰카 촬영 이더러도 높은 조회수만을 생각하는 ‘관중’ 딸이 사라진 스타, 윤시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존재를 다시 깨닫는 작품이다.

가족 이야기에 이어 여성을 주제로 한 작품도 다수 선정됐다. 김정은 감독의 ‘경아의 딸’은 ‘N번방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 동영상 유출로 고통받는 딸과 그 딸을 바라보는 엄마, 그중에서도 엄마의 시선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풀어간다.

또 어머니자 중년 여성 공장 노동자인 정순이 동영상 유출로 받는 인간적 수모와 모멸을 홀로 감당하며 결단까지 내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힘있게 묘사한 정지혜 감독의 ‘정순’도 주목할 만하다.

최정문 감독의 ‘내가 누웠을 때’는 우연히 길에서 조난된 세 여성의 이야기로,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와 함께 장르적인 시도가 눈에 띄는 이야기도 다수 선정됐다. 이완민 감독의 ‘사랑의 고고학’은 고고학자인 여성이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특이한 로맨스를 다룬다. 홍용호 감독의 ‘폭로’는 겉으로는 법정 스릴러 장르의 모양새를 드러내지만, 그 배면에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깔려있다.

임상수 감독의 ‘파로호’는 차매에 걸린 노모와 외부 상황으로 심적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 선정작인 홍다에 감독의 ‘잡자리 구하기’는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잡자리 같은 자신과 친구들을 구하기 위한 절실한 마음을 담은 작품으로, 임시생 때부터 고뇌하던 대하의 의미를 간절하게 묻는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올해 출품작들은 전체적으로 소재가 다양했고, 장르적인 시도가 많았다”면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가족’으로, 팬데믹 장기화로 한동안 바깥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족이나 사랑 같은 내적인 세계로 향한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정작 9편 중 7편이 여성 감독의 작품으로, 여성 감독의 강세가 이어져 상업 영화계에서도 여성 감독의 약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이지는 감독 ‘비밀의 언덕’, 김진화 감독 ‘윤시내가 사라졌다’.
(사진=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제공)

‘전북투어패스 5기 서포터즈’ 모집

4월 4일까지 블로그·유튜브 서포터즈 20명

전북도가 오는 4월 4일까지 ‘전북투어패스’ 홍보에 앞장설 블로그 및 유튜브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블로그 서포터즈 10명, 유튜브 서포터즈 10명이다.

개인 블로그 또는, 유튜브 계정을 활발히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포터즈 활동기간은 4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다.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해 여행한 후 콘텐츠를 발행,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전북투어패스 티켓(1인 2매), 여행지원금 20만 원, 굿즈 증정 혜택이 제공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한, 성과에 따라 우수활동자 3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전북투어패스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받아 4월 4일까지 이메일(dwndk894@lsccompany.co.kr)로 제출하고, 서포터즈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담당자에게 문의(1522-2089)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6일이며 개별 연락 및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공지한다.

운동권 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전북투어패스 서포터즈단이 생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전북도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콘텐츠 IP 활성화 자문위원회’ 발족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지식재산(IP) 산업 육성을 위한 ‘콘텐츠 IP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30일 발족했다.

콘텐츠 IP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콘텐츠 IP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지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텐츠 IP 활성화 자문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만화·웹툰 ▲캐릭터 ▲상품 ▲게임 ▲방송·영상·미디어 ▲음악 엔터테인먼트 ▲스토리 ▲지역 콘텐츠 ▲실감 콘텐츠 ▲문화정책 등 10개 분야의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각 분야별 산업 변화에 따른 IP 사업의 특성을 진단하고, 분야에 맞는 정책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콘텐츠 IP 산업 진흥 통합 정책 로

드맵 수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개최될 콘텐츠 IP 행사인 ‘콘텐츠 IP 박람회(가칭)’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계획, 업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조현래 콘텐츠 위장은 “콘텐츠 IP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최근 다양한 매체 및 플랫폼을 넘나들며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콘텐츠 IP 활성화 자문위원회의 산업·학계·기관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콘텐츠 IP가 이끄는 K-콘텐츠 글로벌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민속악회 맴돌 심청, 꽃을 든 여인)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청년 소규모 모임 공모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슈 Issue’ 사업... 4월 6일까지 이메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잇슈 Issue’ 사업에 함께할 청년 소규모 모임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소규모 모임은 자유로운 주제를 설정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전체 멘토링, 그룹 멘토링, 개별 멘토링 총 3단계 멘토링을 통해 단계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청년 소규모 모임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 제출해야 한다.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6일까지 이메일(hansu@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전라북도 청년예술가, 기획자,

활동가 모임 또는 지역 이슈를 문화예술로 풀어내고자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된 모임이어야 한다.

모임 당 3~5명의 인원수로 10개 내외의 모임을 선발하며, 각 모임별 350만 원 일괄 지원된다.

전년도 선정 모임도 지원가능하나, 전년도 사업 결과물과 동일할 경우 신청 불가하며, 전년도 선정 모임 간 협업을 통한 프로젝트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신청을 위한 신규 소모임의 경우, 소모임 발전 방향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문화사업팀(063-230-74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민속악회 맴돌 심청, 꽃을 든 여인)

‘소리프런티어 시즌2’ 창작 작품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 4월 14일까지 접수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 14일까지 ‘소리프런티어 시즌 2’의 창작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1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소리프런티어’는 국악의 창작 활성화와 우리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판소리 중심의 창작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즌 2로 개편됐으며, 총 7개 단체가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소리프런티어 시즌 2 공모 분야는 무대화되지 않은 창작 초연 작품 중 판소리의 소재 또는 내용, 형태가 접목된 창작 작품으로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 다원 예술, 융복합 등 장르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기획 단계인 공연 작품뿐만 아니라 워크숍, 30분 이내 쇼케이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작품 역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5월 17일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단체는 단계별 공연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공연 운영인력 및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완성된 작품들은 올해 소리축제 기간 최초로 공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는 참가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해 소리축제 웹하드에 올리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리축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리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판소리에 대한 색다른 시선을 가지고 판소리의 동시대적인 의미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독창적인 예술가와 공연 단체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